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김정연A(이선분) 박종삼(이명원) 방석태(차옥자) 석형기(이희순B) 송미선
오귀숙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명화)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이종문 임형문(박금옥)
정경석(박지순) 정상래 채만기(장은주) 최성현(윤정자) 최정규(김미영) 하세련 황상근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김순옥(이한웅) 김태한 박지순(정경석) 방현욱(신영신) 윤영준(박진숙)
이경자(주경덕) 이종문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태진(노윤경)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규찬(최효자) 김민수 김정연B(강준식)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민옥희(윤순한) 박복래 박순자(이동수) 박승현 박종삼(이명원)
백남실(윤병용)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석형기(이희순B) 송다해 송형기(김현숙)
영영로(최세력) 이명희(문영원) 이종문 전순봉 정상래 조규래 종고동부 채영엽 청년부
최기훈(정계숙) 최성현(윤정자) 최효자(김규찬) 무 명

♣ **일천번재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종훈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송에 이아른 이육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락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9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사무엘상 17장 28절 ~ 40절		
월요일	사무엘상 17장 41절 ~ 49절	목요일	사무엘상 18장 10절 ~ 16절
화요일	사무엘상 17장 50절 ~ 58절	금요일	사무엘상 18장 17절 ~ 30절
수요일	사무엘상 18장 1절 ~ 9절	토요일	사무엘상 19장 1절 ~ 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춘		
사무장로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정태진	
	전도사	이필레	
찬양대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지위자	할렐루야 : 김한나 홍 산 나 : 시온 · 에덴 : 최원지 앤 젤 :	
	바탕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선교사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이수경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흥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줄거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3. 02. 19.

옴의 친구들이 저지른 죄악

옴기 17장 6~16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옴은 계속적으로 친구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옴의 친구들은 옴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에 옴은 그들에게 품었던 모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눈물과 한숨짓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서로의 격려자요 위로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충고보다는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서로의 도고 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옴은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지적합니다. 과연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 옴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옴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옴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그치지 않았습니 다. 친구들의 비난을 옆에서 지켜본 이웃들도 옴에게 당연히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옴은 사람들의 모욕적인 손가락질과 비난이 마치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친구들은 옴을 향해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 까? 옴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 다. 그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신들은 당연히 의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한 옴의 친구들은 얼마든지 죄인인 옴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를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자고한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고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친구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옴에게 꽂혔습니 다. 우리는 옴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요,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기 의라는 교만의 루부터 잘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2. 자기 지혜를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 옴은 자신들을 지혜자로 여기는 친구들에게 “너희 중에는 지혜자가 없다.” 라고 못 박았습니 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자로 여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옴을 설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그 사고 체계로 판단하는 편협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언 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편협한 우리의 생각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세상에 속한 많은 지식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고방식들을 축적해 왔습니 다. 때로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안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십자가는 분명 자주이고, 고통이며 모든 자들에게 거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참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옴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충고한다면, 이웃과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조언을 하고, 서로의 힘이되고 격려자가 되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9 - 09

2023. 02.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박 권 제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앙 찬송가 310(통410)장 다 갈 이
(Praise) 아 하나님의 은혜로

대 표 기 도 [1부]최정규집사 [2부]임만순장로 [3부]박권제장로
(Prayer)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율기 18장 1~21절(구약p.777) 인 도 자
(Scripture)

찬 앙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위대하신 여호와(C.H.Gabriel)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악인의 최후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앙 찬송가 304(통404)장 다 갈 이
(Praise)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앙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은 예배시 꼭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후 3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앙 하나님께 찬양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앙 다 갈 이

기 도 홍 정 훈 집 사

찬 앙 브라카찬양단

광 고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1장 1~11절(신약p.371) 인 도 자

설 교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 이 진 우 목 사

찬 앙 다 갈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앙 다 갈 이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1장 19~26절(신약p.206) 인 도 자

설 교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분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델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4: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00 분당		

교회소식

◎ 광고

-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늘(26일) 찬양예배는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합니다.
-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결과]
영아유치부와 유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아유치부와 유초등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입시 전략 세미나]
오늘(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고3 입시 전략 세미나가 로델나무에서 있습니다. 수험생 및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강사 채만기 집사: 강남하이퍼학원 목동관 전략담당)
- [2023년 상반기 학습·세례·입교 문답 공부]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를 3월 5일, 12일, 19일 주일 2시 로델나무에서 합니다. 각 초원과 목장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돌아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문답 공부에 꼭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확인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확인서가 필요한 성도님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행사 안내]

2월	2일(목)~3일(금) 5일(주일) 12일(주일) 13일(월)~15일(수) 19일(주일) 23일(목)~25일(토) 25일(토) 26일(주일)	청년부 겨울수련회 2023년도 장학헌금 작성 공동의회 / 장학부 모임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재정위원회 헌신예배 / 2023년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영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 브라카 찬양단과 함께 하는 찬양 예배/입시전략세미나
----	--	--

◎ 교우소식

- 소천 : 故 전대근 성도 / 전병구 집사(이인숙 권사) 부친 23일 소천, 25일 장례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지휘 반주자 모임(찬양예배 후/연습실) * 입시전략세미나(1:30~2:30/로델나무)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증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박영숙 권사	김문석 피택장로 이화영 권사	사랑2 개봉2 사랑2 개봉3	드로라 여전도회
다음주	안금자 권사		최기훈 장로, 정계숙 권사	사랑2 개봉4 총성 소사	에스더 여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3월 1주(05일)	박종삼 장로	오동호 집사	윤영준 장로	박종삼 장로	김병을 장로	채만기 집사
2주(12일)	윤영준 장로	유현호 집사	최상걸 장로	윤영준 장로	최기훈 장로	김경엽 집사
3주(19일)	최상걸 장로	장윤주 집사	박종삼 장로	최상걸 장로	최성현 장로	홍정훈 집사
4주(26일)	강영성 장로	홍정훈 집사	강영성 장로	강영성 장로	담 임 목 사	최정규 집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